

Guy FAURE (Director)

Cécile ASANUMA-BRICE (Adjoint Director)

Ryuko NAKAMURA (Assistant)

## 주요 업무

도쿄에 위치한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(CNRS) 북아시아 지역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프랑스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와 일본, 한국, 대만 연구기관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한다.

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북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### 정보 제공
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를 위한 학문적,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. 주요 연구 분야를 알리고 과학적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소를 찾아낸다.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와 향후 협력 연구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국가의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, 프랑스 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아시아 연구원들이 국제관계연구소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.

### 연구원 응대

- 업무 차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 연구원을 맞이하고 외국인 연구원과의 협력 연구 시 그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연구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역/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와 프랑스 연구 관련 고위직 대표들을 위한 맞춤 업무를 구상한다.

### 연구 및 협력관계 개발
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와 대학 간, 그리고 북아시아 연구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.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외국 연구원들과 협력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각별히 지적재산권 관련 법을 준수하는데 유의한다.
- 연구원들, 특히 젊은 인재들이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로 찾아오도록 하고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.
- 정확하고 꼼꼼한 연구 활동을 구상한다.

### 조직화 작업

-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연구부처와의 협의 하에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및 PICS, GDRI, LIA, UMI와 같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 연구가 강화되도록 돕는다.

### **위신 강화**

대규모 과학행사(학술회, 과학상 수여식 등) 때마다 기관명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의 위신을 높인다.

북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책임자는 일본, 한국, 대만 주재 프랑스 대사관 소속 과학원 및 문화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.